

| 제 8 장 |

## 맺음말

## 맺음말

전쟁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악(惡)이라고들 말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불행의 도가니에 빠뜨리며 인간의 지성과 이성조차도 마비시킨다. 6.25 한국전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악이라 해도 우리의 생존을 부인하는 적의 침공에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시한 같은 울타리 안의 겨레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침략을 격퇴시켜야하지 않는가? 전쟁이 아무리 악이라고들 한들, 생존이 없는 곳에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세계 1, 2차대전에서 초래된 많은 파괴와 그로 인한 빈곤은 지구상에 급속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가져왔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필품을 비롯해 모든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보다 공평한 분배는 결국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불러왔고 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고 또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정부)가 장악하여 분배와 생산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의 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가 빈곤한 국가에서부터 만연, 전 세계의 절반을 휩쓸며 사유재산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와 대치했다.

이것을 우리는 사상전(Ideological Warfare)이라고 부르며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의 조국이 또 다시 미 소 양대국에 의해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이 이데올로기전의 열전지로 변한 것이 1950년 6월 25일이었다. 그리고 3년 1개월동안이나 끈 이 한국전은 1,000만 이상의 이산가족과 250만명 이상의 생명을 빼앗고, 3천리 금수강산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며 김일성의 한반

도 적화통일의 꿈은 사라져 승자도 패자도 없이 일단 총성은 멈추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의 남과 북은 이 전쟁으로 더욱 더 증오와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갔고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냉전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지만 새로운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은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극동 정책이 또 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의 충돌지대로 부상되어 조국 한반도의 통일은 아주 미묘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가 오늘이라도 분단이 사라져 통일국가가 된다면야 국군포로 문제와 남북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남북이 서로 군사증강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재화를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쓴다면 우리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갈 가망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에 인적 물적 소모를 계속해야 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그간의 오랜 연구 결과는 한국전쟁에서의 국군포로의 운명은 이미 공산진영에서 최대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그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구 소련의 외교문서에서도 또한 정전협상 중에도 북쪽의 이상조(李相朝) 부대표의 필사적인 휴전감시단 산하의 세계적십자 위원회의 북한 억류의 국군포로 면접 거절 등으로 처음부터 국군포로들은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 정전협상에서는 군 지휘권 없는 한국군 대표는 그저 구색으로만 참석하게 되었고 미국 내 한국전의 반전 기운은 포로송환 문제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 못하게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 결국 오늘날 많은 국군포로들을 적지에 남겨둔 채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이다. 국가의 위기 때 그토록 “조국을 지키라”고 외쳤던 대한민국 정부는 “한사람의 포로도 없다”는 북한에 대해 포로 문제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에서 (\*\*\*) 임동원 저 “피스메이커”에 잘 나타났음) 적극성을 띠지 못했고 (\*\*\*) 노무현 정권 때도 그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여 김정 일에게 직접 이 문제를 두번 제기했을 뿐) 역대 정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등 나라가 자기 나

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아주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65년전 조국의 운명이 풍진등화와 같았을 때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내 한 목숨 조국에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참전용사들 중 많은 장병들이 적탄에 쓰러졌고 많은 장병들이 적의 볼모가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과 자유가 과연 그들의 희생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특히 조국 방위를 위하여 싸우다가 불운하게도 적의 볼모가 되어 한평생을 지옥과 같은 적지에서 남쪽 하늘만 바라보며 한 많은 삶을 마감하고 있는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운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65년이 지난 지금 그 비참했던 6·25 한국전도 그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조국을 지키다가 볼모가 된 그들의 존재 또한 서서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것 아닌가?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